

韓廷玉氏의 『神卽社會禮』論에 對한 一考(一)

鄭景玉

緒言

現代는 宗教를 모조리 排斥한여바린다든가 그러치 안흐면 통으로 집어 삼킬 새가 아니라 宗教라는 特殊한 人間 經驗 事實을 決算하며, 合理的 批判을 나릴 새이라고 생각 한다. 아마도 人類의 길고긴 歷史가 잇스후 現代보다도 더 宗教를 疑心한새가 업섯슬 것이며, 現代만치 宗教問題에 對한 根本的 興味를 느낀 새가 잇지 안헛다. 그리하여서 最近 몇해 동안 宗教의 研究는 여러 가지 方面으로 實質的 發展을 일루어 왔다. 歷史科學의 立場에서는 宗教의 起源과 發達形態를 研究하고 心理學方面에서는 宗教意識의 心的 過程을 考察하며 哲學的으로는 宗教의 實在와 價値를 評價하는 등 지난 三十年間에 宗教의 研究는 質로나 量으로 적지 안흔 成果를 삼엇다고 할 것이다.

三月九日부터 東亞 日報에 韓廷玉氏의 『神과 人間生活』이란 小論文이 連載되엇다. 이 論文을 繼續하여서 읽어 보신 분은 이 論文이 朝鮮 宗教 思想界에 큰 供獻이 되엇다는 것을 疑心하지 안 흘줄 안다. 氏의 글은 概括的으로 보아서 健實한 썩시스 味가 잇다고할가-何如間 요새 흥이 보는 宗教批判 보다는 썩어난 무게가 잇는 것이 었다. 그는 생각이 깊고 갈름이 밝다. 氏의 論文은 本來『嚴密한 哲學的 見地에서』 썩보자든 것이 事實에 잇서 서는 『嚴密한 哲學』(第一回 第二段第四行) 인 것보다 社會學이나 文化史를 읽는 甬김이 업지 안 헛스나, 이 論文에 一貫한 氏의 學者的 態度에 만흔 敬意를 表하는바이다.

그러나 氏의 『神卽社會禮』論(三回 五段 二十八行) 은 이제 새로 만들어내어 甬는 新 學說이 아니다. 오거스르콩트의 『필로소피, 피시리브』(一八三〇-一八四二年에 發刊)는 宗教心이란 超人間的 實在와 根本的 關係를 가지고 잇는 것이 아니라, 人間社會自體의 秩序에 關聯된 것이라고 主張하엿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 외 하나님은 人類自體이란 말이다. 原始時代에는 人間社會를 超越한 實在를 밋기도 하얏스나, 이러한 『神學的』時代가 지나가고

『社會的』時代가 올 때에는 앞서 이와 가튼 超人間的 神은 업서져 바리고 人類 그것이 宗教信仰의 對像이 되었다고 하였다. 콩트의 社會學的 宗教論을 이어서 뎀카임은 宗教에 超人間的 實在가 있다는 것□지도 否認하고 原始人의 神은 部族自體를 人格化한것이라고 하였다. 그 外에도 佛蘭西사람으로 레 비쉴이나 엠,허벗이나 엠,마우쓰와 가튼 사람을 들 수 잇겠다. 獨逸 사람으로는 바울내롭의 『人間範□內에 잇는 宗教』가 그 好例이며 米國에는 쉬카고 大學 哲學科 課長이었던 애임스教授의 人文主義가 이것이다. 애임스는 宗教를 『最高社會價値에 對한 意識』이라고 定義한다. (宗教經驗의 心理一九七頁) 그가 一九三〇年에 發刊한 『宗教』란 책에는 『宗教의 하나님은 社會價値를 理想化하고 齊遍化하고 人格化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宗教를 社會價値와 同一視할 때에는 倫理와 宗教사이에 區分이 업서 진다.....모든 道德的 理想은 社會의 가장 緊切한 利害를 表現한것인 以上 宗教的 意義가 잇다고 할 것이라』(同上二八五頁)고 한다. 日本에도 일즉히 帆足理一郎과 가튼 사람이 애임스의 思想을 그대로 日本에 傳하여 주엇고 翻譯文으로도 社會的 宗教觀을 力唱하는 어빙킹氏의 『宗教의發達』이나 제임스루바의 『宗教心理學』이나 우리가 잘 아는 푸라이씨의 『꼴든빠우』가 斷片的으로 紹介되어 잇는 것이다.

韓廷玉氏의 『神과 人間生活』은 이러한 社會學的 宗教觀을 우리 朝鮮에 紹介하여 주엇다는 點에 잇서서, 더욱 興味를 가지고 잇는 바이다. 勿論 우리 朝鮮에는 일즉히부터 人文主義에 흐르는 固有한 宗教思想이 잇서서 宗教의 社會的 意義를 力說하여 온것이 事實이나, 이 宗教思想에 잇서 서도 社會自體를 重要視하는 同時에 個體의 人格性도 神性視한다고 解釋된다. 氏의 『神卽社會體』說이 어느 程度□지 이러한 宗教의 感化를 받엇는지 筆者로서는 알길이 없었으나 國産이든 □來品이든 筆者의 知識이 미치는데□지 現代 宗教學者들의 理論을 빌어서 氏의 學說을 解剖하여 보기로 한다.